



5.1 세계노동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매년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하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와 단결을 확인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세계노동절 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하루 12~16시간 처절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던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장시간 노동으로 받은 임금으로는 판잣집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반해 자본가들은 다이아몬드 이빨을 자랑하고, 100달러 지폐로 담배를 맡아 피우는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공장의 기계를 멈추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한 자본과 정권은 헤이마켓 광장 폭발 사건을 일으켜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그중 4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당시 사형을 당한 노동운동 지도자 어거스트 스파이스의 '하나의 불꽃은 짓밟아도 들불을 끌 수 없다'라는 법정 최후 진술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투쟁 정신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1890년부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매년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노동절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하여 2,000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노총 창립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민주노조의 확산을 억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후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이 계속되었고, 한국노총이 진행하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과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5월 1일 노동절이 각각 진행되기도 하였다. 1994년부터 비로소 5월 1일을 하나의 노동절로 기념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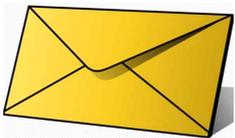
“대통령 거부권을 시민이 거부한 총선, 22대 국회가 한 가닥 희망”

경향신문_강한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대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2024년 4월 14일)

□ 윤석열이 거부한 대표법안

노란봉투법



2009년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77일간 벌인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법원에서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명만 모아도 조합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됨.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추진운동으로 이어졌다. 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방송3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양곡관리법



현행 ‘주요 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정부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간호법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은 일제가 우리나라 의료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조선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으로 다양한 의료인이 한 데 묶인 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상황으로 현재 간호업무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간호계의 입장이다.